

개인적 파르레시아에서 집단적 파르레시아로 : 「두려움 없는 발언과 저항」에 대한 코멘트」¹⁾

사토 요시유키(佐藤嘉幸)

농밀한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두려움 없는 발언과 저항」에¹⁰⁰ 서, 푸코의 ‘파르레시아’(진실을 말하기)의 개념을 민중 집회로서의 ‘집회(어셈블리)’에 관련짓고 이로부터 다음의 두 가지 물음을 제기했습니다. (1) 우리는 진실을 말할 때,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것인가? (2) 파르레시아는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것으로 이해되지만 그것이 집단적인 것으로서 이해될 가능성은 존재하는가? 우리는 이 두 가지 물음에 대해 검토하고, 이로부터 집단적 파르레시아로서의 집회(어셈블리)의 가능성에 대해서, 현대 일본의 예를 들면서 고찰하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점부터 검사합니다. 푸코의 ‘파르레시아’ 개념은 그의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교에서의 강의(1983년)에서는 Fearless Speech(두려움 없는 발언)으로 영역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강의에서 푸코는 에우리피데스의 『엘렉트라』로부터 다음과 같은 대사를 인용합니다. “당신은 내가 나의 의견을 자유롭게, 두려워하지 않고 말해도 좋다고 약속했습니다”(You promised that I might state my opinion freely without fear(*parresian*).²⁾ 그러나 ‘파르레시아’ 개념은 콜레주드프랑스에서의 강의 『자기와 타자의 통치』(1982-83년)에서는 franc-parler(솔직하게 말하기) 혹은 dire-vrai(진실을 말하기)로 번역되며(이런 번역어는 버클리강의에도 존재합니다), Fearless(두려움 없이)에 상당

1) 이 글은 버틀러 씨의 발표에 대한 논평 원고로, 당시의 토론을 바탕으로 사후적으로 수정을 가한 판본이다. 특히 토론에서의 오지 켄타(王寺賢太)의 발언에 시사를 받았다.

2) Michel Foucault, *Fearless Speech*, *Semiotext(e)*, 2001, p.34.

하는 표현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오히려 자신의 몸을 위험에 노출하는 ‘용기’야말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위나 집회(어셈블리)에서, 자신의 몸을 위험에 노출하고 두려움을 품으면서도
101 용기를 갖고서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야말로 파르레시아에 관건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여기에서 두 번째 점으로 넘어간다면, 파르레시아는 개인의 영웅적 행위 뿐 아니라, 집단적인 정치적 행위이기도 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푸코가 군주제적인 파르레시아로부터 구별하는 민주제적 파르레시아에 있어서, 어떤 개인이 행하는 파르레시아는 공중을 설득하지 않으면 정치적 변혁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르레시아를 행하는 자가 타자를 설득하는 것이며, 그 설득이 실패할 위험을 떠맡는 것입니다. 『자기와 타자의 통치』에서 인용합니다.

명령이 겨눠지는(건네지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한 투쟁적인 게임 속에서 마찬가지로 명령을 내릴 자격을 원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를 남겨두는 말, 저는 그것이 바로 파르레시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에는, 그런 투쟁과 상황에 결부된 다양한 결과가 수반됩니다. 우선 첫째로, 발언된 말이 설득적이지 않기 때문에, 민중이 자신에게 등을 돌릴 수도 있다. 또는 자기 자신의 말의 곁에 그 여지를 남겨둔 타인의 말이, 자신의 말을 이겨버릴 수도 있다. 다른 말에 자유로운 여지를 남겨두고, 타자를 자기 자신의 의지에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설득한다는 책무를 짊어진 말이 내포하는, 그런 정치적 위험, 바로 그것이 파르레시아 특유의 영역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런 파르레시아를 도시국가의 틀 안에서 이용하는 것, 그것은 - 방금 전에 말한 것을 따라 - 로고스와 폴리스를 동시에 조작하고 다루고 그 두 가지에 동시에 관여한다는 것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 일까요? 폴리스에서 로고스를 사용하는 것 - 이 로고스라는 것은 진

실의 말, 이성적인 말, 설득하는 말, 다른 말에 대답할 수 있고, 그 진실의 무게와 설득의 효능에 의해서만 상대를 거꾸러뜨리는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진정한, 이성적인, 투쟁적인 말, 토론의 말을 폴리스라는 분야에서 이용하는 것, 바로 그것이 파르레시아의 내실인 것입니다.³⁾

여기에서 푸코는 민주제에서의 파르레시아는 정치체(폴리스) 속에서 진실을 말하는 자가 그로고스 즉 진실로 가득 찬 이성적인 말에 의해 사람들을 설득함으로써 비로소 파르레시아로서 성립한다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개인적 파르레시아는 집단에 의해 공유되지 않으면 정치적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개인에 의한 정치적 호소(파르레시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공유됨으로써 하나의 집회(어셈블리)로 생성합니다. 이것은 파르레시아가 단순히 개인적 행위가 아니라 설득(호소), 공유, 참가를 통한 집단적 행위이기도 하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물론 개인적 파르레시아가 집단적 파르레시아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타자의 설득에 실패하고 스스로가 그 존재 그 자체를 잃어버린다는 리스크를 떠안아야 합니다(실제로 이른바 ‘중우 정치’에 의해 민주주의의 조건 그 자체가 성립되지 않게 된, 민주제적=정치적 파르레시아로부터 철학적 파르레시아로의 이행기에서, 소크라테스는 대화에 의한 시민들의 ‘설득’에 실패하고 폴리스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기를 위협에 노출시키는 ‘용기’야말로 자기=타자 촉발을 초래하며, 정치를 변화시킬 가능성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102

예를 들어 “오키나와현 헤노코에 새로운 미군기지 는 필요한가”라는 물음을 둘러싸고 행해지는 현민투표의 예를 참조합시다. 오키나와에는 일본의 미군기지의 약 75%가 집중되어 있으며, 많은 오키나와 현민이 미군기지의

3) Michel Foucault, *Gouvernement de soi et des autres. Cours au collège de France. 1982-1983*, Gallimard/seuui. 2008. p.34.

집중을 일본국에 의한 차별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2018년), 미군에 의한 헤노코에의 새로운 기지건설에 의문을 가진 오키나와의 한 젊은이의 현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호소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횡단적인 조직을 형성하고 마침내 현민투표를 가능케 했습니다(현민투표는 2019년에 실현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파르레시아로서의 호소는 단순히 어렴풋이 “새로운 미군기지는 필요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그 말에 의해 설득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운동에 참가시키고 그것을 ‘현민투표’라는 하나의 정치적 행위로 이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적 변화를 초래하기 위해서, 파르레시아스트(개인적 파르레시아의 행위자actor)는 스스로를 타자에 의한 다양한 위해포염에 노출시키는 ‘용기’를 떠안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개인적 파르레시아는 스스로를 타자에게 드러내는 ‘용기’를 매개로 하여 그것을 집단적 파르레시아로 변용시킴으로써 비로소 정치적 행위로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중집회의 성립 과정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따라서 집회(어셈블리)가 형성되기 위한 존재론적 조건이, 당신이 말하듯이 우리의 존재의 ‘상호의 존’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실현되기 위한 현실적 조건은 스스로를 타자에게 드러내는 ‘용기’를 매개로 한, 이런 **개인적 파르레시아의 집단화**가 아닐까요?

일본에서는 2011년 이후, 두 가지 중대한 저항운동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에 전개된 반원전운동이며, 다른 하나는 현재의 평화헌법에 반하여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가능케 하는 안보법제에 대한 반대운동입니다. 이 두 가지 운동은 모두 도쿄에서 수만명 규모의 시위를 실현했습니다만, 두 운동 모두 (1) 복수의 비위계적이고 수평적인 조직화와 그런 횡단적인 결합에 의해 지탱되었다, (2) SNS에 의한 호소를 통해 많은 일반 시민의 참가를 얻었다는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아랍의 봄이나 오쿠파이 운동과 친화성이 높을 뿐 아니라, 실제로 전략에 있어서 그런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그리고 이 두 가지 특징에 의해, 이 운동들은 극히 위계적인 극우의 배외주의적 시위로부터 구별됩니다). 이와 같이 사회운동은 세계 규모로 전

파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나 그 밖의 정치적 수단에 의해서 생존의 조건을 박탈당한 상태 103
태를 당신은 precarity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이 개념은 『위태로운 삶』⁴⁾에서 레비나스의 개념인 precariousness로서 도입되고 있으며, 그곳에서는 타자에 대한 노출에서 유래하는 주체의 존재론적 가상성(可傷性 venerability)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셈블리』에서는 그런 존재론적 함의는 신자유주의가 강화하고 있는 생존의 조건의 박탈이라는 정치적 함의에 의해 이중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존의 조건을 박탈해가는 경제나 정치에 대한 의의제기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 굶주림, 노여움, 자유롭고 그리고 이성적이라는 가능성”⁵⁾이 존재하는 것이며, 그런 가능성이 지배적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활동에서 신체적 필연성 혹은 신체적 필요를 배제하는 정치관은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 새로운 자유의 가능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점은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에 이의를 제기하는 집회(어셈블리)나 시위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 이후의 일본에서의 반원전운동, 안보법제반대운동에서는 바로 정치활동이 신체적 생존과 본질적인 방식으로 관계했습니다. 탈원전운동을 구동한 것은 “원전사고가 자신의 아이에게 어떤 건강상의 영향을 가져오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는 엄마들의 불안이며, “원전재가동이 새로운 원전사고로 이어지면, 자신들이 사는 장소나 목숨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많은 사람들의 분노, 불안이었습니다. 또한 안보법제반대운동을 구동한 것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것은 자신들이나 친구들, 미래의 자신들의 자식들의 죽음으로 이어질지

4) Judith Butler, *Prearious Life : The Powers of Mourning and Violence*. Verso, 2004, pp. XVII-XIX. p.134.

5) Judith Butler, *Notes Toward a Performative Theory of Assembly*, harvard University Press. 2015, p. 47. 덧붙여, 이하의 부분은 내가 쓴 이 책의 해설과 내용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일러둔다.

도 모른다”는 젊은이들의 불안이며, “누구의 자녀도 죽이지 못하게 한다”는 어머니들의 분노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 그녀들의 이의제기, 혹은 **집단적 파르레시아**는 원전사고나 전쟁 같은 생존의 조건의 박탈에 대해 항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그녀들은 이런 생존의 조건의 박탈에 대해 불안과 분노를 가지면서, 동시에 용기를 갖고서, 자유롭게 그리고 완전하게 이성적으로 항의 활동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 그녀들은 거리에서, 그래서 많은 공중이나 경찰관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용기’를 갖고서, 항의 활동을 전개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항의활동에 대해, 당시의 자민당 간사장인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는 2011년 6월의 기자회견에서 “반원전은 집단히스테리이다”고 모욕적인 담론을 던지고, 또한 반군사회운동을 주도한 여학생의 SNS 계정에는 우과의 지지자들에 의해 대량의 섹슈얼 해리스먼트가 투고되었습니다(거리에서 많은 공중 앞에, 또한 SNS를 포함한 미디어에 자신의 신체를 드러내는 것은 항상 이런 비방 중상의 리스크를 동반하며, 이런 의미에서도 정치적 변화를 호소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타자에게 드러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에서, 젠더 바이어스를 포함한 차별적 담론이 운동의 행위자factor에게 던져졌다는 사실은 지극히 징후적입니다. 즉 그들은 “**여자아이의 정치**”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신체적 생존에 관한 불안감이나 분노를 “**여자아이의 정치**”라고 잘라내는 것이야말로, 바로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파괴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반원전운동이나 반군사회운동은 **신체적 생존의 박탈 가능성에 의해 구동된 정치**인 동시에 자기를 타자에게 드러내는 ‘용기’를 매개로 하여 **그러한 신체적 생존의 박탈 가능성을 변혁하려고 하는 집단적 파르레시아**이기도 합니다.

104